



국제기구 · 수출신용기관

◆ 미수은, 재생에너지 및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에 15년 장기여신 제공

미수은은 최근 재생에너지 및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상환기간 최장 15년의 여신 제공을 개시하였다. 이러한 여신조건의 변경은 최근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에 따라 새로운 '재생에너지 및 수자원 프로젝트에 관한 부문별 양해각서'가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, 이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하여 상환기간 최장 15년의 여신제공을 허용하고 있다.

미수은의 재생에너지 관련 수출지원 대상 사업은 풍력, 태양에너지, 地熱, 海低地熱, 조력, 바이오에너지 프로젝트이며, 수자원 관련 사업은 상·하수도 사업이다.

미국의 재생에너지 및 수자원 관련 수출업계는 그 동안 이 부문이 기존의 수출신용협약 조건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수출신용협약에서 정의하는 '상업성'¹⁾이 없어, 다른 OECD회원국들이 타이드윈조 프로그램을

자국 수출지원을 위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미국기업들이 수출경쟁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. 이러한 자국 수출업계의 민원에 따라 미국은 OECD수출신용협약 회원국들에게 본 양해각서의 입안을 제안, 이번에 채택된 것으로 회원국들은 우선 향후 2년간 본 양해각서를 시험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.

해당 분야에 대한 여신의 상환기간이 최장 1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이들 프로젝트의 '상업성'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, 이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상업성검토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, 향후 이 부문에 대한 타이드윈조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. 미수은은 본 양해각서와 장기여신의 제공으로 미국 수출업계가 해당 부문에서 비로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.

[안 응 호]

◆ 미수은, 케이프타운 협약²⁾ 비준국들에게 제공하는 위험수수료 할인 연장

미수은은 최근 상업용 대형항공기 구매관련 케이프타운 협약 비준절차를 마친 서명국

에 대하여 미수은 지원금융을 사용하는 경우, 여신지원조건 중 대외위험수수료(exposure

1) OECD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하는 개념으로 통상 일반 상업금융조건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투자원금 및 금융비용을 회수하지 못 하는 경우 상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. 일반적으로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사업은 상업성이 없음.

2) 케이프타운 협약은 2001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합의된, 항공기 및 관련 엔진구매를 위

fee) 할인 혜택을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. 이에 따라 본 협약 비준절차를 마친 회원국들은 2006년 9월 30일 이전까지 신항공기를 담보로 미수는 자금을 이용하여 상업용 대형항공기나 엔진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외위험수수료를 최대 1/3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. 미수은은 이와 함께 유럽의 ECA들에게 케이프타운 협약 비준국 항공사들에 더 나은 금융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공동프로그램(common approach) 개발협의를 제안하였다.

현재 미수은 상업용 대형항공기 수출지원 여신의 대외위험수수료는 최소 3%이므로

케이프타운 협약 비준국의 대외위험수수료는 최소 2%까지 축소될 수 있다. 항공기 엔진에 대한 여신조건은 이 보다 더 유리하다. 미수은은 케이프타운 협약으로 국가간을 이동하는 항공기 및 항공기 엔진 수출지원 여신에 따른 특정 위험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외위험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.

미수은은 항공기 리스회사에 대해서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 항공사가 케이프타운협약 비준국 법인인 경우 똑같은 우대조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.

【안 응 호】

◆ JBIC, 규슈대학 및 고베대학과 업무협정 체결

JBIC은 해외경제협력 업무에 대한 지식과 실무의 유기적 제휴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슈대학 및 고베대학과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. 본 협정은 해외경제협력 업무의 효율적·효과적 실시 및 공적개발원조(ODA) 분야의 교육, 연구, 전문가육성을 향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.

2003년 8월에 개정된 '신ODA 대강'은 해외경제협력 분야에서 일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였으며, 이에 따라 대학 및 전문가가 ODA에 참여해 기술 및 지식을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과 개발원조기관과의 제휴 강화가 추

진되고 있다.

이러한 노력이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, 전문가 양성, 개발도상국 지역 연구 및 개발정책 연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JBIC은 해외경제협력 업무 중 '개발 파트너십 확대'를 명시하고 있어 대학과의 제휴를 통하여 서로의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. 이와 관련하여 JBIC은 규슈대학과 중국의 석탄 광업 및 파급효과 연구에, 고베대학과는 아프리카 원조, 인도네시아에 있어서의 인재육성 분야에 협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.

본 업무협력 협정을 계기로 JBIC은 해외

한 금융제공 시 담보 확보 및 리스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약으로 현재 28개국이 서명하여 6개국(미국, 이디오피아, 나이지리아, 파나마, 파키스탄, 오만)이 협약비준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,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음. 한국은 아직까지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음.